



지방선거 벽보 게시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 광주 북구 유동에서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한국당 뺀 여야 “원구성 나서자”

4당 오늘 소집 촉구 기자회견...“지방선거 전 어렵다” 비판론도

여야는 지난 31일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소집된 6월 임시국회의 공전 책임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한국당이 권성동 의원의 인신 구속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회를 ‘블랙아웃’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명분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안전 처리를 위해서라도 우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이 하지 말라는 방탄 국회만 열고, 하라는 자기 의장단 선출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오후 2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의 소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6월1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고,

30일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을 통해 방탄국회 반대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

다만, 한국당을 빼고 여야 3개 교섭단체만 모여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기자회견에 앞서 당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현안을 처리하자면서 정작 현안 처리의 선결 조건인 의장 선출을 막고 있다”며 “이것이 방탄국회 아니라는 한국당 주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당은 여당의 ‘방탄국회’ 비판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국회법상 앞으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방탄국회’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윤재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

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탄국회라는 말은 한국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 역시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으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6·13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수로 수반되는 조속한 본회의 개최를 원할 리가 없다. 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의장이 없는 상황이라 본회의를 할 방법이 없다.

특히, 여야 모두 선거운동에 매달리고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돼 그 결과를 보기 전에는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고, 빨라야 6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가 열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 본회의를 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명수 “재판 거래 관계자 형사조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문...법원행정처 이전·조직 분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계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착륙한 조사결과로 총격과 실랑이를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각

계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게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의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

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해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연합뉴스

6·13 선거현장

구청장·군수 후보

임우진 “서구를 전국 최고 자치모델로”



임우진 무소속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31일 “이번 선거에 반드시 당선 되어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광주 서구를 전국 최고의 자치모델을 만들기 위해 4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자율과 참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서구형 자치위원회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을 총회 등 직접민주주의 촉진정책을 추진하며 마을공동체 리더·공유활동가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주민 주도형 좋은 마을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권력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서구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인 “북구 발전위해 ‘원팀’ 시정 운영”



문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지난 31일 북구청 앞에서 당내 경선 후보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북구지역 출정식을 가졌다.

문 후보 선대위는 광주 북구 갑과 을 지역위원장장을 맡고 있는 이형석 시장위원장과 강기정 전 국회의원을 공동 삼임선대위원장으로, 당내 경선에서 참여했던 조오섭·문상필 예비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문 후보는 “북구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이 ‘원팀’이 되어 앞장서 나아가기로 했다”면서 “북구 유권자들께서 집권여당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정현, 환경직 종사자·시장 상인 애로 청취



이정현 민주평화당 광산구청장 후보는 지난 31일 환경직 종사자와 재래시장 상인, 인력대기소 노무자 등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경제는 매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며, 소득격차의 심화로 자칫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의 상태로,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소득 감소로 생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삼호 “정부 국정과제 지방정부서 구현”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는 지난 31일 수원지구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차고지를 찾아 새벽을 여는 미화원들과 체조를 함께 하고 배운 뒤, 하남대로와 임방울대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김 후보는 “밤낮없이 고생하는 경찰들을 격려하고 더 안전한 광산을 만들자는 의미로 지구대 방문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방정부에서 구현하겠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길호 “천일염 대체 양식 활성화”



고길호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는 지난 31일 “천일염산업 위축에 따른 대체양식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하도록 정책을 세울 것이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염전 저유지를 활용한 해상·새우양식 연구사업 결과, 하·하·신·하·도조권역은 서해 냉수대가 유입되는 최적 해상양식 지역으로 평가됐다”면서 “새우의 배설물을 해상 먹이로 사용하는 친환경양식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수산연구소 연구개발로 해상·낙지·김·우럭·전복·새우 등 양식 사업을 안정적으로 양성해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병동 교육·문화·체육·관광 정책간담회



박병동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후보와 유은혜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영)이 최근 교육·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사업을 논의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정준 문학관 건립사업 ▲장흥 해안도로 자전거 도로 조성 ▲42.195km 해안 문화길 조성 ▲회진면 체육단지 건립 ▲월송조선백자 도요지, 신북 구석기 유적 사적지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장유진·이슬비 장흥군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 송다빈 장흥군 청소년운영위원장, 신주원 장흥군 청소년 동아리 대표, 위명운 장흥군 청소년 수련관장, 신미경·박승우 장흥군 문화예술단체 대표와 당원 등이 참석했다. /박정욱·오광록·신안=이상선 기자 jwpark@

강필구 영광군의원 전국 최초 8선 도전

6·13지방선거에서 전국 첫 8선 기초의원 탄생을 볼 수 있을까? 강필구 영광군의원 의장이 영광 가선거구에서 전국 최초로 8선 군의원에 도전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7선은 강 의장과 경북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두명뿐이다.

8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강필구 후보는 1991년 민선 1기 영광군의회에 입성한 이래 7차례 연속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특유의 부지런함과 친밀감으로 지역을 깔고 닦은 게 성공비결이다. 특히 4년전 선거에서는 9명의 후보와 겨뤘던 당당히 1위로 당선, 저력을 과시했다.

재선·3선에 성공하면 통상 체급을 올려 도의원 또는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데, 강 후보는 지금까지 군의원에만 ‘올인’했



다. 이로 인해 그의 직업은 ‘군의원’이 됐다.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 공천장을 받아 당선이 더욱 유력한 상황이다.

강 후보는 “주민들을 잘 섬기고,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심부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새벽 4시30분께 일어나 목욕탕에서 첫 유권자를 만난다. 이후 인력소개소 등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일과 중에는 사람이 모이는 행사장을 찾겨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박정욱 기자 jwpark@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